중소·중견기업 지원책 다양 '도약 호기로'

'박근혜 정부' 출범…산업계 변화 예고

일감 몰아주기 금지 등 재벌 감시 강화
선순환 창업 생태계 조성해 성장 독려

박근혜 정부가 25일 닻을 올림에 따라 앞으로 5년동안 우리나라 산업 전반에 큰 변화가 예고되고 있다.

중소기업은 기업하기에 더 좋은 환경이 제공돼 창조경제의 든든한 축으로 성장할 것으로 기대되는 반면 재벌들은 계열사 일감몰아주기 등 편법을 통한 몸집키우기는 더 이상 힘들게 됐다. 비계열사인 중소기업과의 동반성장은 시대적인 요구이다. 이에 따라 그 동안 재벌들을 중심으로 해 굴러 온 우리나라 산업계는 새로운 모양의 틀이 짜여질 전망이다.

◇재벌 정도경영해야…지배구조 변화도 관심=24일 재계에 따르면 박근혜 정부는 대기업집단, 이른바 재벌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부정이 있을 경우에는 과거보다 엄격한 처벌을 할 방침이다.

과거 정부에서는 경제성장에 대한 기여를 인정받아 편법·탈법이 어느 정도 이해되는 분위기였지만 박근혜 정부에서는 더 엄격한 잣대가 적용될 가능성이 높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발표한 박근혜 정부 국정과제에는 재벌들이 껄끄러워 했던 공약들이 전부 포함됐다.

경제민주화라는 용어가 빠져 '기업정책이 후퇴한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기도 했지만 일감 몰아주기 근절, 지배주주의 횡령·회계부정행위에 대한 법집행 강화, 신규 순환출자 금지, 금산분리 강화 등이 고스란히 실렸다. 공약이 아니었던 출자총액제 한제 부활, 기존 순환출자 해소 등은 국정과제에 실리지 않았다.

재벌들을 긴장시켰던 공약들이 국정과제로 확정되자 대기업들을 중심으로 한 재계는 볼멘소리를 내고 있다.

가뜩이나 글로벌 경기상황이 좋지 않아 경영환경이 어려운데 정부 정책 조차 투자의욕을 꺾고 있다는 불만이다. 재계의 불만스런 목소리에도 불구하고 국정과제는 수순을 밟아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

재벌들이 편법으로 계열사들에게 일을 맡겼던, 이른바 일감몰아주기는 발붙이기가 어려워진다. 일감몰아주기에 따른 부당이익을 환수할 뿐 아니라 총수일가에게도 직접 과징금을 부과할 방침이다.

◇중소기업에는 도약 기회=대기업집단과는 대조적으로 중소기업들에는 우호적인 환경이 열릴 것으로 기대된다. 중소기업을 대기업의 하청업체로만 보는 데서 벗어나 창조경제의 주역으로 키우기 위해 각종 지원 정책을 도입하겠다는게 새 정부의 방침이기 때문이다.

새 정부는 중소기업의 기술력과 생산성을 높여 강소기업으로 육성하고 '중소→중견→대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여건을 확충해 경제 부흥과 일자리를 창출할 계획이다.

글로벌 강소기업 육성을 위해 연구개발 지원을 강화하고 수출 단계별로 맞춤형 지원을 강화하기로 해 수출 중소기업의 해외 판로가 넓어질 것으로 보인다.

중소기업을 졸업하면 한꺼번에 끊어졌던 각종 금융·세제 지원도 단계적으로 축소하기로 해 '중소기업의 피터팬 증후군'을 어느 정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그동안 중견기업이 되면 47개 혜택은 사라지는 대신 200여 개의 규제를 받게 돼 중소기업에 계속 머무르려는 현상이 나타나 경제계에서는 이를 해결하기 위한 완충 장치 마련을 제안했다.

새 정부는 또 '창업→성장→회수→재도전'의 선순환 창업·벤처 생태계를 조성해 인재의 도전과 성공을 지원하고 경제에 활력을 줄 계획이다. 이를 위해 청년창업펀드를 신설하고 국민들로부터 소액을 모금해 창업에 투자하는 크라우드 펀딩과 보육·투자·기술개발을 연계하는 한편 엔젤투자의 소득공제를 확대할 방침이다.

실패해도 압류 재산 면제 범위를 확대하고 재창업 시 과거 세금 실적을 반영해 소득세와 법인세 일부를 감면하는 방안도 추진돼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 도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키로 했다. /연합뉴스

전남농협 '2013년 드림워커 연찬회'

NH농협은행 전남영업본부(부행장보 고태순)는 지난 23일 영암 현대호텔에서 2012년 마케팅 관련 우수직원 100여명을 초청해 '일류뱅커를 꿈꾸는 당신, 꿈은 이루어 진다'라는 주제로 '2013년 드림워커 연찬회'를 열었다.

'혹한기' 증권가

작년 3분기 순익 1131억원…2008년 이후 최저

증권사의 작년 3분기(10~12월) 당기순이익이 글로벌 금융위기가 닥친 2008년 이후 최저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증권사의 작년 3분기 순익은 1131억원으로 2008년 2분기(934억원) 이후 18분기만에 가장 적었다.

이는 주식거래 대금이 줄어 수탁수수료 수익이 크게 감소했기 때문이다.

작년 3분기 주식 거래대금은 384조원으로 전분기보다 9.1%(38조원) 줄었다. 이로 인해 수탁수수료는 2분기 9838억원에서 3분기 8897억원으로 9.6% 감소했다.

증권사의 작년 1~3분기 누적 순익은 7877억원으로 전년 동기(1조7498억원)보다 55.0% 작아졌다.

작년 1~3분기 주식거래 대금은 1193조원으로 전년 동기(1715조원)보다 30.4% 적다. 2008년 이후 최저 수준이다.

유럽 재정위기와 미국 및 중국 경기둔화 등으로 글로벌 경기회복이 지연된데 따른 것이다. 증권사들이 인력을 줄이고 지점을 통·폐합하는 등 구조조정에 나섰지만 글로벌 경기 부진 영향을 피할 수는 없었다. 작년 3분기 자기자본이익률(ROE)은 1.9%로 전년 동기보다 2.6%포인트 하락했다.

작년 12월 말 현재 전체 증권사의 평균 영업용순자본비율(NCR)은 498.3%로 2011년 말(568.4%)보다 70.1%포인트 하락했다. /연합뉴스

현대차 美 방송사 광고
아카데미 시상식 협찬

현대자동차가 슈퍼볼에 이어 아카데미 시상식에도 대규모 광고를 한다.

현대차는 ABC방송사에 의해 중계될 제85회 아카데미 시상식에 대형승용차 에쿠스·준대형 제네시스,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 산타페 등 9편의 광고를 협찬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아카데미 시상식은 캘리포니아 할리우드에 있는 돌비 시어터에서 열린다.

'오스카 상'으로 불리는 '아카데미 시상식'은 최우수 작품상, 남녀 주연상 등 24개 분야에서 최고의 자웅을 가리는 미국 최대의 영화축제다. 현대차는 이번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시상식 전 2회, 시상식 본 프로그램 중 7회 등 30초 분량의 광고 총 9편을 내보낸다.

특히 엘란트라부터 최고급 세단인 제네시스·에쿠스에 이르기까지 거의 전 라인업에 걸쳐 광고를 실시함으로써 브랜드 인지도를 높일 계획이다.

현대차는 방송 중간중간 빌보드 형식으로 브랜드를 노출하는 한편 공식 웹사이트(http : //www.oscars.com)에도 스폰서 배너 광고를 할 방침이다. 현대·기아차는 지난 3일 열린 미식축구 슈퍼볼 경기에 싼타페, 뉴 쏘렌토R을 주력으로 한 총 7편의 광고를 실시한 바 있다. /연합뉴스

롯데장학재단 22명에 장학금 롯데백화점 광주점(점장 류민열)이 지난 22일 백화점 문화센터 다목적홀에서 전남대 학생 22명에게 롯데장학재단 장학금을 전달했다. 〈롯데백화점 광주점 제공〉

국민행복기금, 장기 신불자 채무조정

1년이상 연체자 원리금 감면·분할상환 등

새 정부가 국정과제로 제시한 '국민행복기금'을 활용해 빚을 오랫동안 갚지 못한 신용불량자의 채무를 매입·조정한다.

1년 이상 갚지 않은 '장기 연체채무'가 대상으로 거론된다. 행복기금은 이런 채무를 원금의 10% 이하에 사들여 원리금을 감면하고 장기 분할상환으로 전환한다.

현재 은행연합회에 등록된 1년 이상 연체채무는 5조원이다. 채무자는 48만명으로, 130만명으로 추정되는 금융채무불이행자(신용불량자)의 약 40%에 해당한다.

금융위는 대부업체 등에 진 빚이나 7년이 지나 은행연합회 자료에 남지 않은 채무를 고려하면 전체 규모는 이보다 더 클 것으로 보고 있다.

금융위가 1년 이상 연체채무의 규모를 파악하는 이유는 새 정부의 국민행복기금으로 지원할 대상을 추려내기 위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지난 21일 "금융회사와 민간 자산관리회사가 보유한 장기 연체채무를 국민행복기금이 매입해 채무조정하겠다"고 국정과제를 발표했다.

금융위 관계자도 "국민행복기금 운영과 관련해 인수위와 오랜 논의를 거쳐 어느정도 구체화한 공약이행 계획을 마련해 뒀다"고 확인했다.

다만, 오는 25일 퇴임하는 김석동 금융위원장의 후임이 정해지면 이를 보고한 뒤 집행해야 해, 내용을 확정적으로 언급할 수는 없다고 이 관계자는 덧붙였다.

현재로선 일반적인 무수익여신(NPL·Non Performing Loan)과 비슷하게 상각 처리된 채권을 3~7% 가격에 할인 매입하는 방안이 유력시된다.

채무조정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채무자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고자 재산조사를 엄격히 하고 채무자와 '분할약정서'를 맺어 착실히 나눠 갚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국민행복기금은 자산관리공사(캠코)의 재원 1조8000억원으로 최대 10배의 채권을 발행해 조달하되, 상황에 따라 필요할 때마다 수시로 채권을 발행할 방침이다.

금융권에선 국민행복기금과 개념이 비슷한 캠코의 '신용회복기금'의 사례에 비춰 국민행복기금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5% 안팎의 가격에 연체채권을 사들이는 신용회복기금은 약 4년 전 7000억원 규모로 도입했으며, 현재 기금 잔액이 5000억원으로 비교적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연합뉴스

전남 농어촌공 농업생산기반정비 평가 1위

한국농어촌공사 전남지역본부(본부장 김행윤)가 지난해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 종합평가에서 전국 1위를 차지했다.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 종합평가'는 전국 9개 도본부를 대상으로 책임경영체계 확립과 공사 경영목표의 효과적 달성을 위해 농촌용수개발사업과 배수개선 사업 등의 연간 추진성과와 공사현장 안전 품질관리 노력을 반영해 실시하는 평가다.

전남본부는 지난해 다목적 농촌용수개발사업 및 배수개선사업 36개 사업을 시행하면서 '공사현장 기동점검반'을 운영하는 등 공사현장 청렴도 향상과 부실 시공을 방지하기 위한 창의적이고 모범적인 사업관리 등을 높이 평가받아 전국 9개 본부평가에서 최우수본부로 선정됐다.

전남본부가 최우수상을 수상한 것은 지난 2002년 이후 10년 만이다.

김행윤 본부장은 "올해에도 신규사업 창출과 직원 직무교육 강화, 사업장 청렴도 향상 등 안전한 먹을거리 농업생산기반관리를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은미기자 emlee@kwangju.co.kr